

Industry Report

2020-07-06

[포스트 코로나(11)]

글로벌 상반기를 통해 본 하반기

커버리지종목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콜마비엔에이치(200130)	NR	
테고사이언스(191420)	NR	

하반기에도 유동성 장세, 성장성 극대화 흐름 이어질 듯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19 로 주목 받은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패스트리 438.0%, 쇼피파이 191.7%, 엔비디아 79.3%, 에퀴닉스 32.3%), 플랫폼(핀두오우오 161.7%, JD.com 71.1%, 페이스북 48.3%, 아마존 47.0%), 콘텐츠(스포티파이 99.9%, 넷이즈 58.1%, 블리자드 40.4% 넷플릭스 37.4%), 원격진료(알리바바 헬스 96.8%, 텔라닥 헬스 39.4%), 전기차(테슬라 154.4%, LG 화학 55.3%, CATL 52.4%), 헬스케어(모더나 139.6%, 셀트리온 129.2%, 삼성바이오로직스 121.6%, 론자 50.3%), 재택근무(업워크 144.9%, 줌비디오 108.3%), 홈코노미(룰루레몬 101.3%, 저스트잇 47.7%), 결제(페이팔 86.2%) 등이다.

이렇듯 코로나 19 가 주식시장의 판을 흔들어 놓았다. 즉, 코로나 19 를 계기로 일어난 산업구조 지형 변화의 빅 픽처(Big Picture)는 오프라인의 온라인화에 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성장 혹은 쇠퇴 기업이 확연히 구별됨에 따라 성장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유동성 장세와 맞물리면서 글로벌 주가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식시장의 동조화는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들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성장성 부각 동조화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2010 년대 중반부터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환경하에서 산업지형의 변화가 그 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 로 인해 그 변화가 보다 더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19 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의 차별화가 더욱 더 심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 환경하에서 성장성 등이 극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락다운 되지 않는다면 2008 년 사례와 같이 공매도 금지 해제 전까지 상승세는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Untact) 라이프, 재정정책, 스마트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주목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 솔루션: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한컴 MDS, 2. 인프라: 케이아이엔엑스, 에치에프알, 3. 보안: 파이오링크, 4. 하드웨어: 삼성전자, 싸이맥스, 인텍플렉스)
- 언택트 라이프(1. 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갈럭시아컴, 2. 콘텐츠: 펄어비스, 스튜디오드래곤, 3. 플랫폼: 카카오톡, 네이버, 4. 신선식품: 지어소프트, 5. 재택근무: 알서포트, 6. 클라우드: 더존비즈온, 7. 오프라인제품: 에코마케팅) - 재정정책(LS, LS ELECTRIC, 대림산업, 현대상사, 동국 S&C, 씨에스베어링, 그린플러스) -스마트 헬스케어(1. 디지털의료서비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레이, 2. 인프라: 미디어나, 제이브이엠, 3. 백신: SK 케미칼, 4. CMO: SK, 삼성물산, 5. 바이오: 에스티팜, 엔지켐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 6. 건강기능식품: 콜마비엔에이치,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엔비티, 7. 수술용로봇: 고영)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김관호 (2122-9194) kkh0468@hi-ib.com

표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 수혜주

구분		종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한컴MDS
	인프라	케이아이엔엑스, 에치에프알
	보안	파이오링크
	하드웨어	삼성전자, 싸이맥스, 인텍플러스
언택트 라이프	결제	NHN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갤러시아컴즈
	콘텐츠	필어비스, 스튜디오드래곤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재택근무	알서포트
	신선식품	지어소프트
	클라우드	더존비즈온
	오프라인제품	에코마케팅
	홈노미	한샘
스마트 헬스케어	디지털 의료서비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레이
	인프라	메디아나,제이브이엠
	백신	SK케미칼
	CMO	SK, 삼성물산
	바이오	에스티팜, 엔지켐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
	건강기능식품	콜마비엔에이치,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엔비티
	의료용 로봇	고영
재정정책	LS, LS ELECTRIC, 대림산업, 현대상사, 동국S&C, 씨에스베어링, 그린플러스	

자료: 하이투자증권

1. 하반기에도 유동성 장세, 성장성 극대화 흐름 이어질 듯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인구 구조상 은퇴 인구가 많아지며 소비 성향의 구조적인 변화로 제조업 위주의 경제가 쇠약하면서 이에 기반한 자영업 위주의 오프라인 서비스 산업이 하락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부채가 늘어났지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이러한 부채 증가의 부담을 경감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19 로 인하여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을 자제함으로써 정상적 경제 활동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실물경기 위축이 경제 위기로 전이되는 형태로 경제적 쇼크가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쇠약해진 가계 및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코로나 19 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3 월 전세계 주식시장은 하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무기한, 무제한 양적완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의회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총 2 조 8000 억 달러 가량의 부양책을 마련하여 집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정책은 3 월 16 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인하 해 연 0.75%로 결정했으며, 5 월 28 일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연 0.5%가 되었다. 또한 재정정책의 경우 1~4 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50 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즉 실물 피해대책 32 조 원, 금융 안정대책 100 조 원, 추가 보강대책 20 조 원 등이다. 이어 4 월 22 일 열린 제 5 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약 90 조 원에 이르는 기간산업 지원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40 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해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되 고용 유지와 임직원 보수 제한 등의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채 매입과 소상공인 지원에 35 조 원, 긴급 고용안정대책에 10 조 원도 추가했다.

이러한 금융정책, 재정정책 등 유동성 장세에 힘입어 주식시장은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상승탄력을 받고 있는 중이다 즉, 지난 3 월 19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 수익률은 각각 44.6%, 72.3%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코스피 및 코스닥 수익률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불확실성 반영으로 각각 7.7%, -0.9%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주요국 증시 중 최하위권에 랭크 되었다. 반면에 지난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글로벌 주요국 증시 상승률에서 코스닥이 제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글로벌 주요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환경하에서 올해 3월 코로나 19로 낙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원회는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하여 공매도를 금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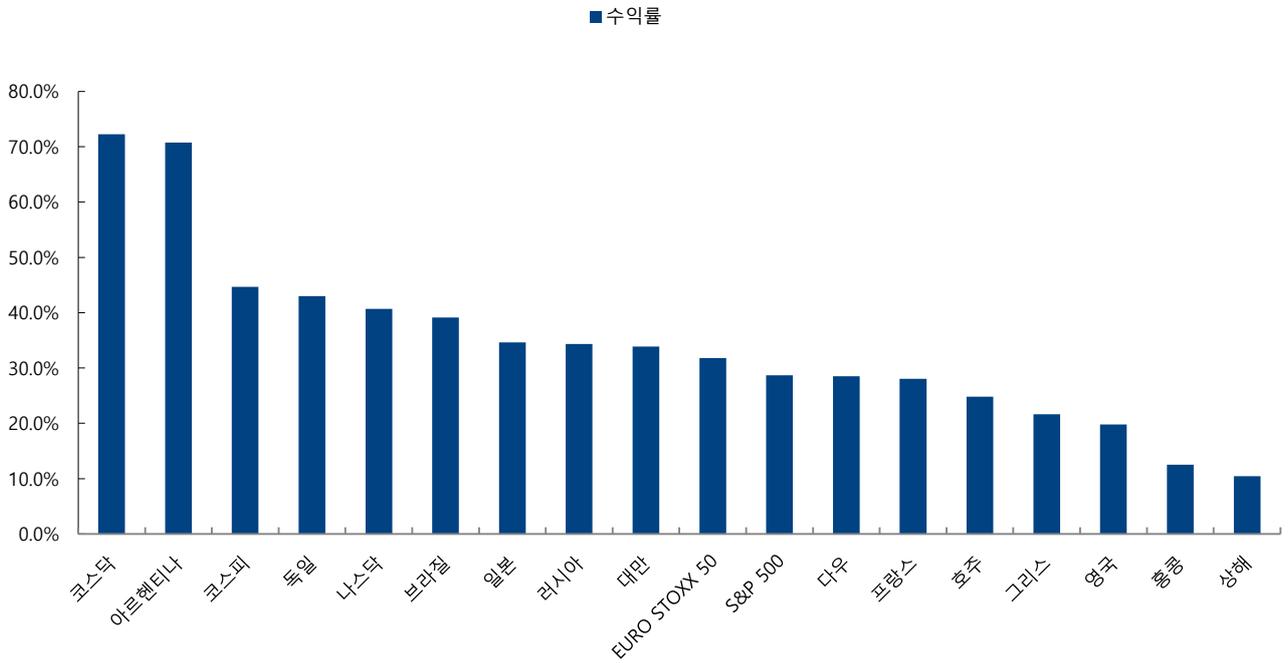
무엇보다 코로나 19가 주식시장의 판을 흔들어 놓았다. 즉, 코로나 19로 산업구조 지형 변화의 빅 픽처(Big Picture)는 오프라인의 온라인화에 있다. 향후 성장하는 기업과 쇠퇴하는 기업으로 확연하게 구별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성장가능 기업 주가에 선반영이 강하게 일어 나면서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는 중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성장주들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극대화 되는 구간에서 상승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고 코스피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환경하에서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사례에서 보듯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주식시장이 반등하였으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코스피 지수의 경우 상승폭이 떨어졌으며, 코스닥 지수는 조정을 받았다. 이는 공매도 금지 유무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가 보다는 기간과 외국인 수급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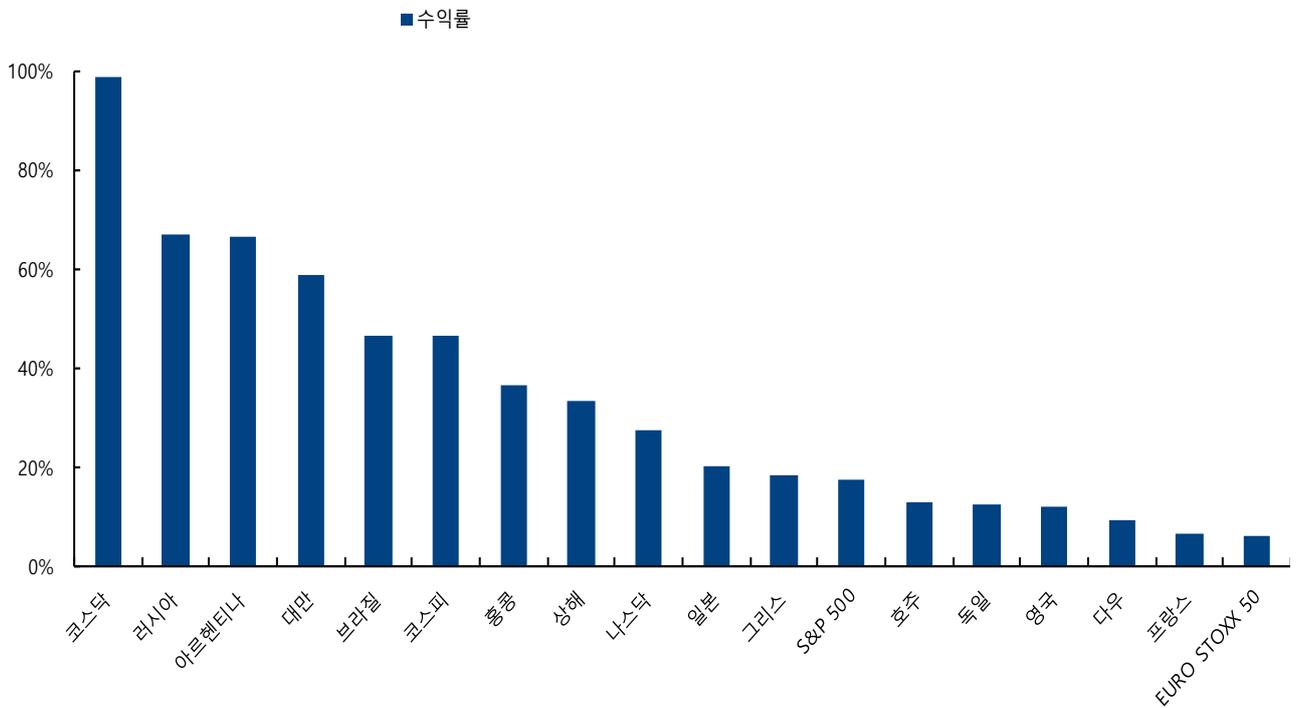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장세 환경하에서 성장성 등이 극대화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락다운 되지 않는다면 2008년 사례와 같이 공매도 금지 해제 전까지 상승세는 유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 글로벌 주요국 증시 수익률(2020년 3월 19일 ~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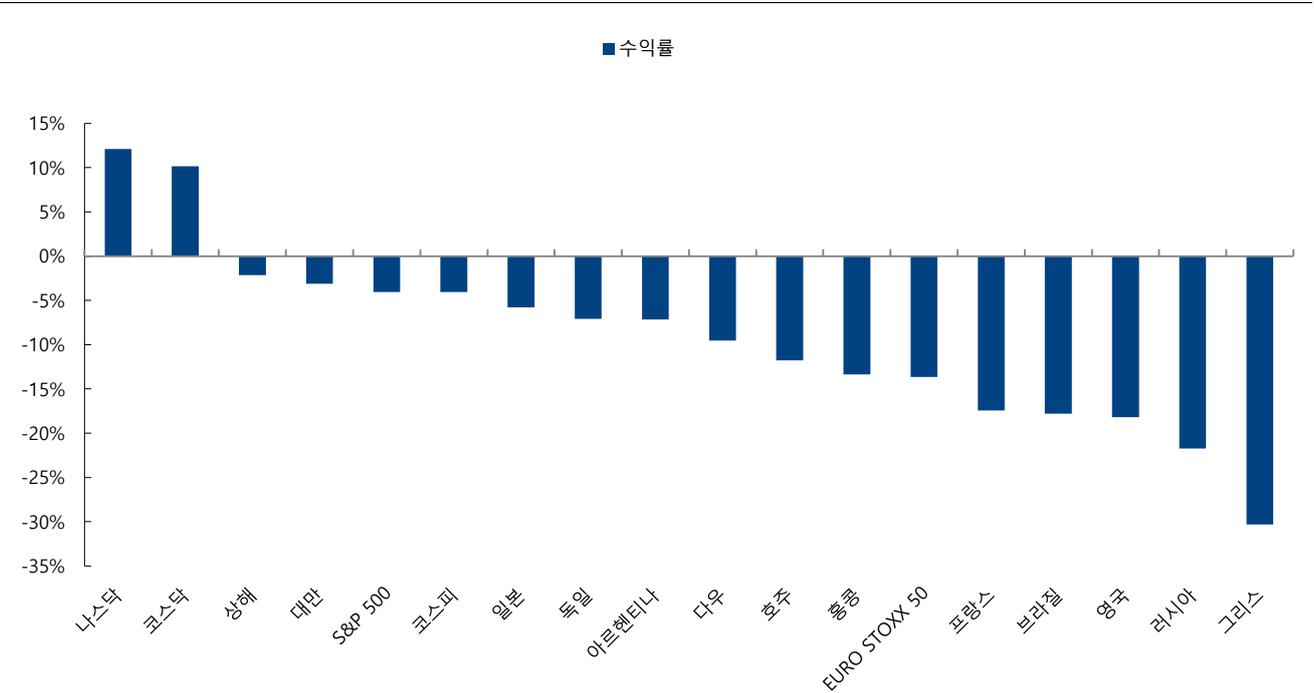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2. 글로벌 주요국 증시 수익률(2008년 11월 20일 ~ 2009년 5월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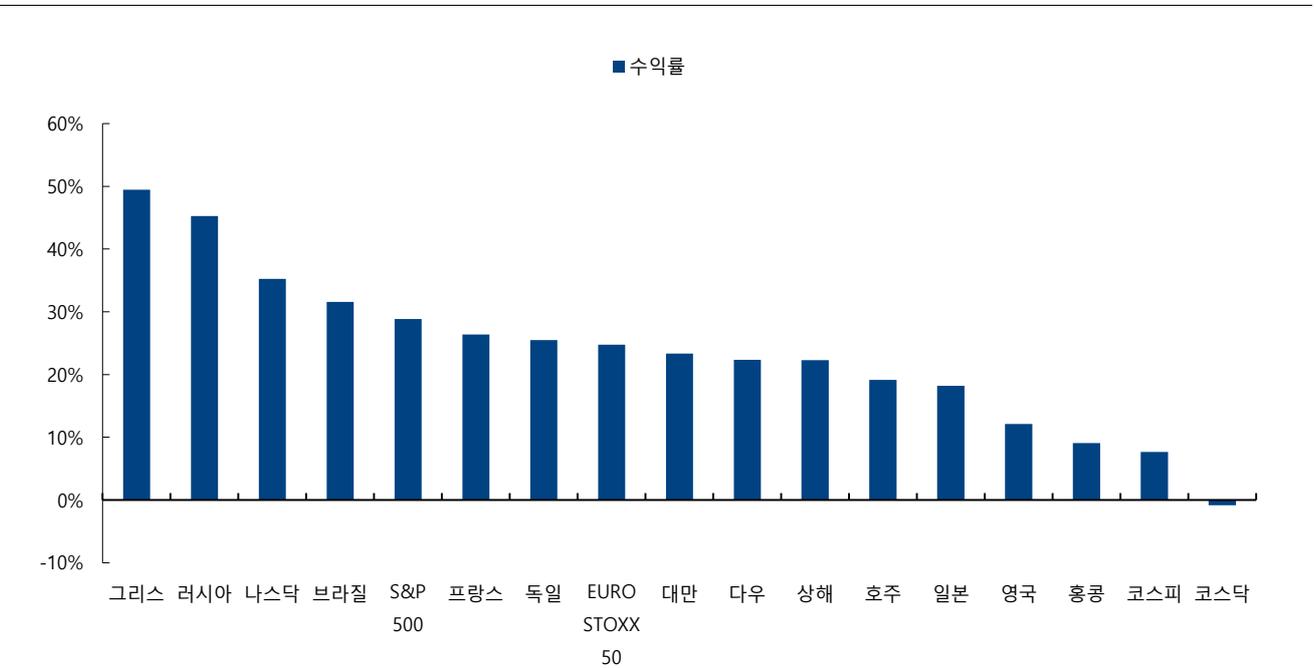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그림3. 글로벌 주요국 증시 수익률(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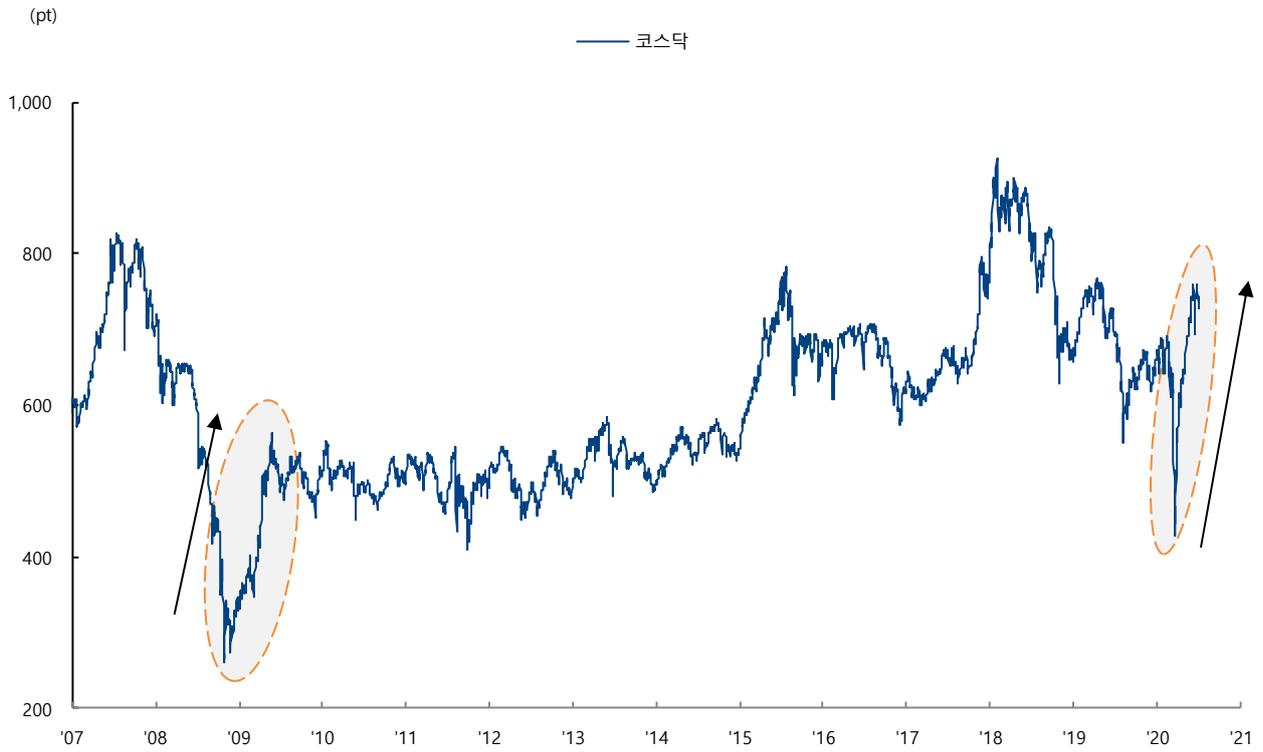
자료: Dataguide, 하이투자증권

그림4. 글로벌 주요국 증시 수익률(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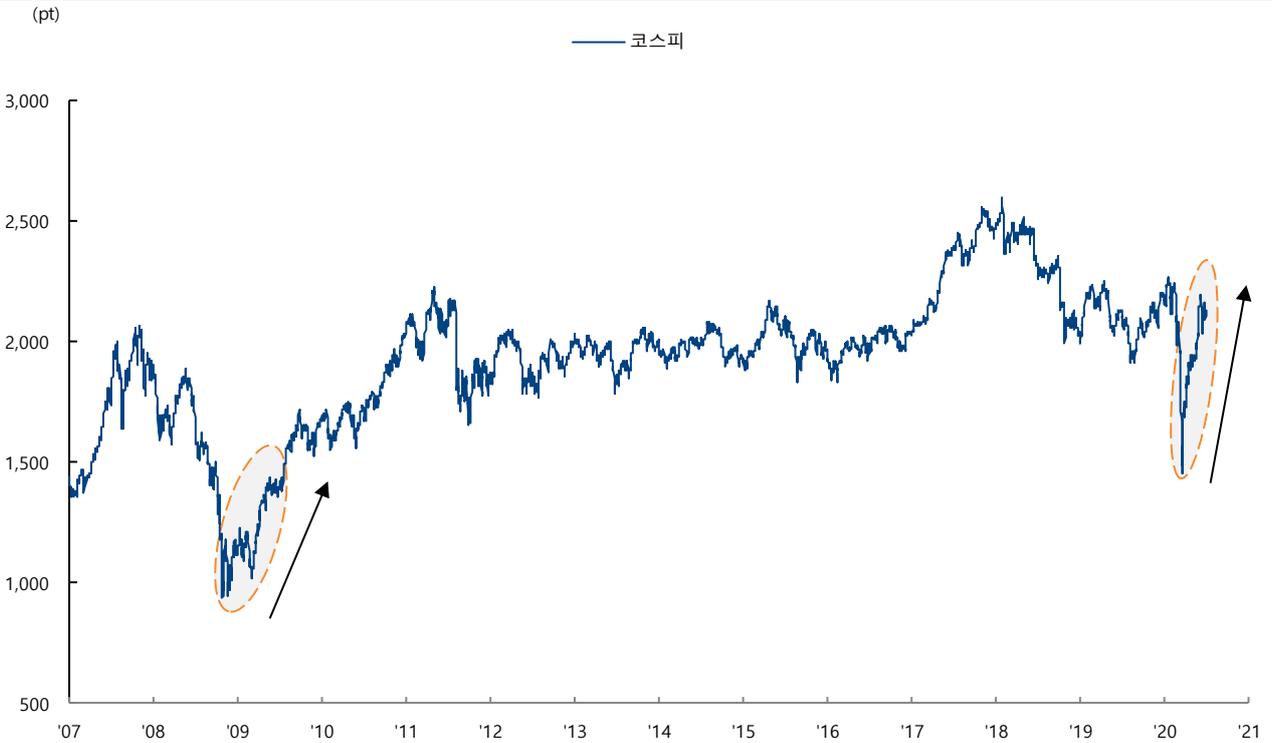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그림5. 코스닥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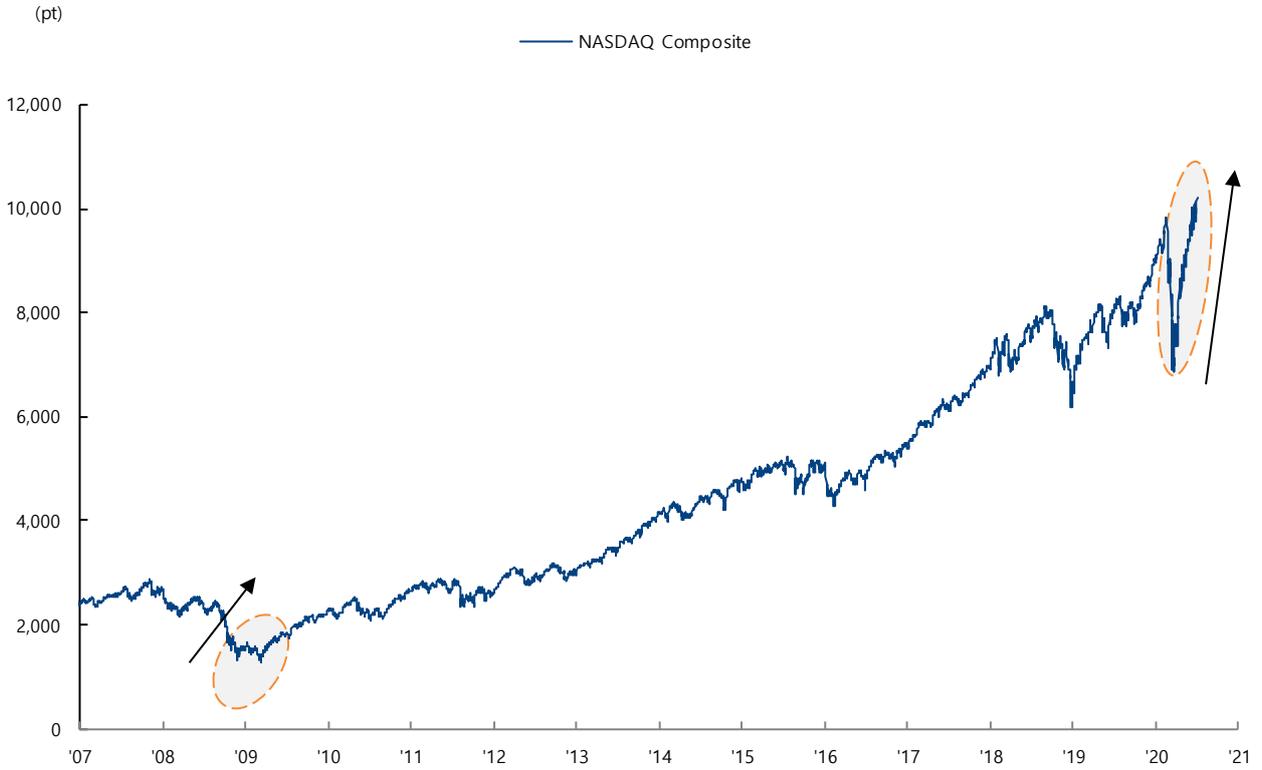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그림6. 코스피 지수 추이



자료: Quantiwise, 하이투자증권

그림7.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그림8. S&P 500 지수 추이



자료: Quantwise, 하이투자증권

II. 하반기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Untact) 라이프, 재정정책,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주목

1.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19 로 주목 받은 글로벌 기업

코로나 19 로 인하여 전세계 산업지형도가 바뀌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전세계 주식시장에 반영 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 코로나 19 로 주목 받은 글로벌 기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패스트리 438.0%, 쇼피파이 191.7%, 엔비디아 79.3%, 에퀴닉스 32.3%)
- 플랫폼(핀두오두오 161.7%, JD.com 71.1%, 페이스북 48.3%, 아마존 47.0%)
- 콘텐츠(스포티파이 99.9%, 넷이즈 58.1%, 블리자드 40.4% 넷플릭스 37.4%)
- 원격진료(알리바바 헬스 96.8%, 텔라닥 헬스 39.4%)
- 전기차(테슬라 154.4%, LG 화학 55.3%, CATL 52.4%),
- 헬스케어(모더나 139.6%, 셀트리온 129.2%, 삼성바이오로직스 121.6%, 론자 50.3%)
- 채택근무(업워크 144.9%, 줌비디오 108.3%)
- 홈코노미(물루레몬 101.3%, 저스트잇 47.7%)
- 결제(페이팔 86.2%)

이와 같이 이들 주식들을 카테고리 분류하면 변화되는 세상인 코로나 뉴노멀과 관련된 언택트(Untact) 라이프 스타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탈세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식시장의 동조화는 보다 더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19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금융 및 재정정책들이 비슷하게 전개될 것일 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련 종목들의 성장성 부각 동조화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2.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19 로 주목 받은 글로벌 기업

회사명	국가	섹터	시가총액 (20.06.30) (억 USD)	수익률(%) ('20.03.19~'20.06.30)	내용
패스트리	미국	Technology	8,770.5	438.0%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수요 급증 수혜
쇼피파이	캐나다	Technology	113,088.2	191.7%	-온라인 스토어 수 증가 수혜
핀두오두오	중국	Consumer discretionary	102,804.2	161.7%	-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상거래 쇼핑 증가 수혜
테슬라	미국	Consumer discretionary	200,316.6	154.4%	-중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로 인해 수혜
업워크	미국	Technology	1,662.7	144.9%	-코로나19로 인해 프리랜서로의 전향 수요 증가
모더나	미국	Healthcare	24,966.4	139.6%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슈
셀트리온	한국	Healthcare	34,382.9	129.2%	- 코로나19로 바이오시밀러 수요 증가 수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	Healthcare	42,698.5	121.6%	- 바이오 CMO 가치 부각
중비디오	미국	Technology	71,524.4	108.3%	-연택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로 수혜
롤루레온	캐나다	Consumer discretionary	40,625.9	101.3%	-재택근무확산으로 홈트레이닝 제품 수요 증가
스포티파이	스웨덴	Communication services	47,965.1	99.9%	-락다운으로 인한 실시간 음악 스트리밍 수요 증가
알리바바 헬스	홍콩	Healthcare	37,762.6	96.8%	- 온라인 원격 진료 서비스 증가 수혜
페이팔	미국	Technology	204,574.0	86.2%	- 온라인 전자 상거래 활성화 수혜
엔비디아	미국	Technology	233,644.7	79.3%	- 데이터 센터 칩에 대한 수요 증가 수혜
JD.com	중국	Consumer discretionary	92,989.3	71.1%	-락다운으로 인한 온라인구매 수요 증가. 1분기 매출액 전년동기대비 21% 증가
넷이즈	중국	Communication services	58,900.6	58.1%	-락다운으로 인한 온라인 게임 수요 증가. 1분기 실적 전년동기대비 18% 증가
LG화학	한국	Materials	10,230.5	55.3%	-전기차 시장규모 성장 이슈
CATL	중국	Industrials	54,467.2	52.4%	-전기차 시장규모 성장 이슈
론자	스위스	Healthcare	39,329.8	50.3%	- CMO 가치 부각
페이스북	미국	Communication services	647,452.8	48.3%	- 페이스북 삼에 대한 기대감
저스트잇	영국	Consumer discretionary	15,541.5	47.7%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량 증가로 수혜
아마존	미국	Consumer discretionary	1,376,033.3	47.0%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매출 증가로 수혜
블리자드	미국	Communication services	58,479.8	40.4%	-락다운으로 인한 온라인 게임 수요 증가. 2020년 실적 가이드라인 상향
텔라닥 헬스	미국	Healthcare	14,208.7	39.4%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의료 컨설팅 건수 증가로 유료회원은 수 약 60% 증가
넷플릭스	미국	Communication services	200,128.4	37.4%	- 락다운으로 인한 가입자 수 증가
에퀴닉스	미국	Real estate	62,163.8	32.3%	-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수혜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9. 패스틀리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0. 쇼피파이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1. 핀두오두오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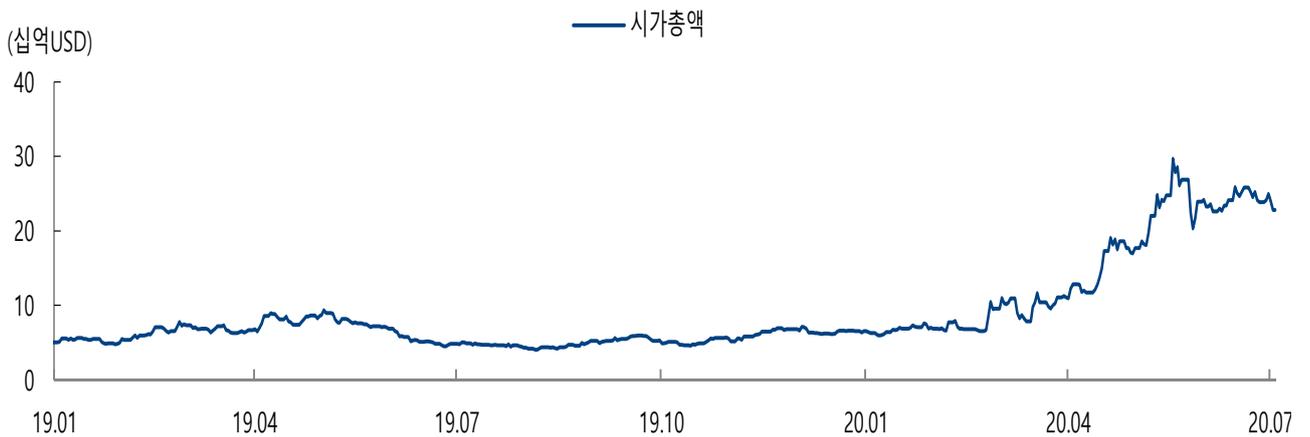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2. 테슬라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3. 모더나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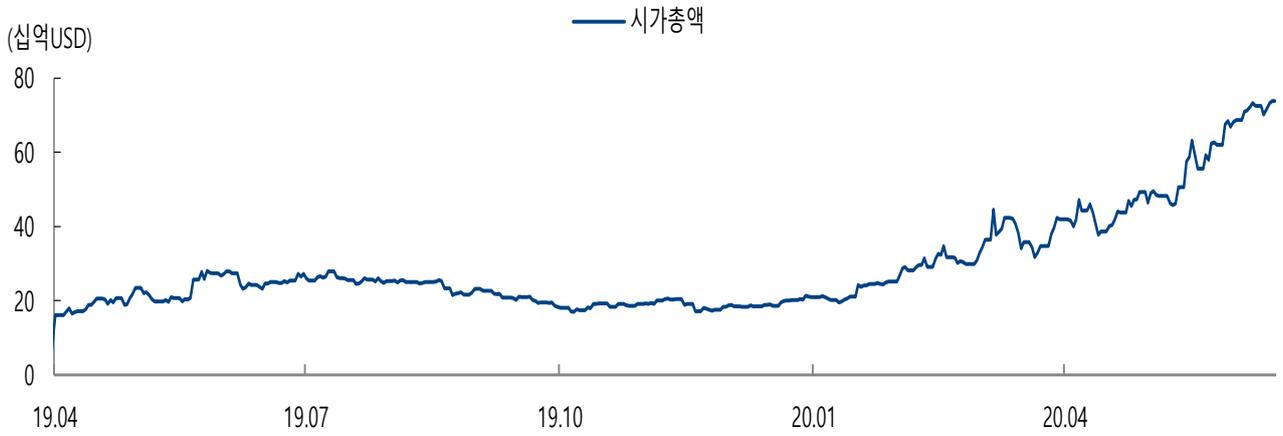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4.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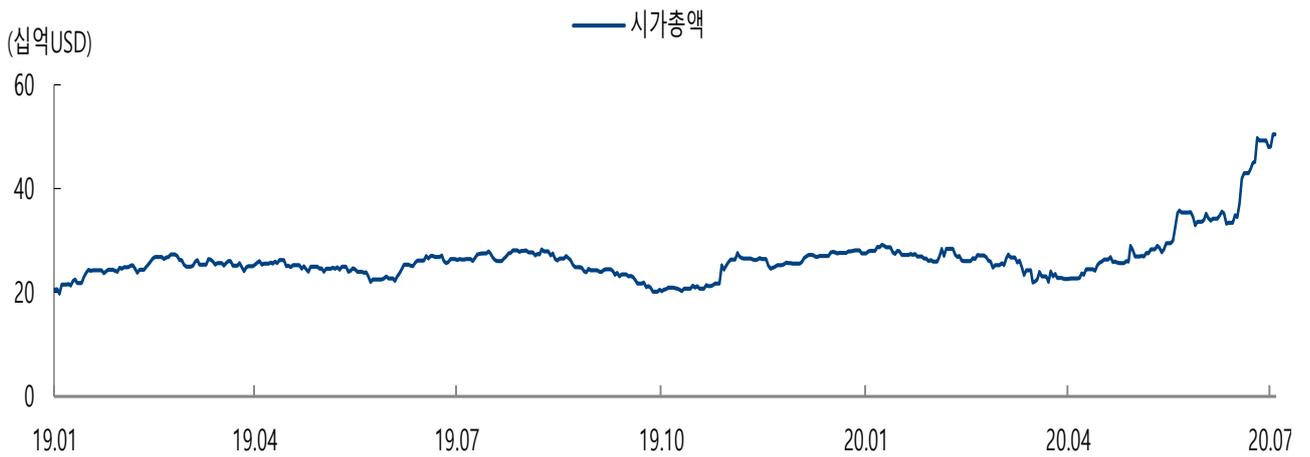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5. 줌비디오 시가총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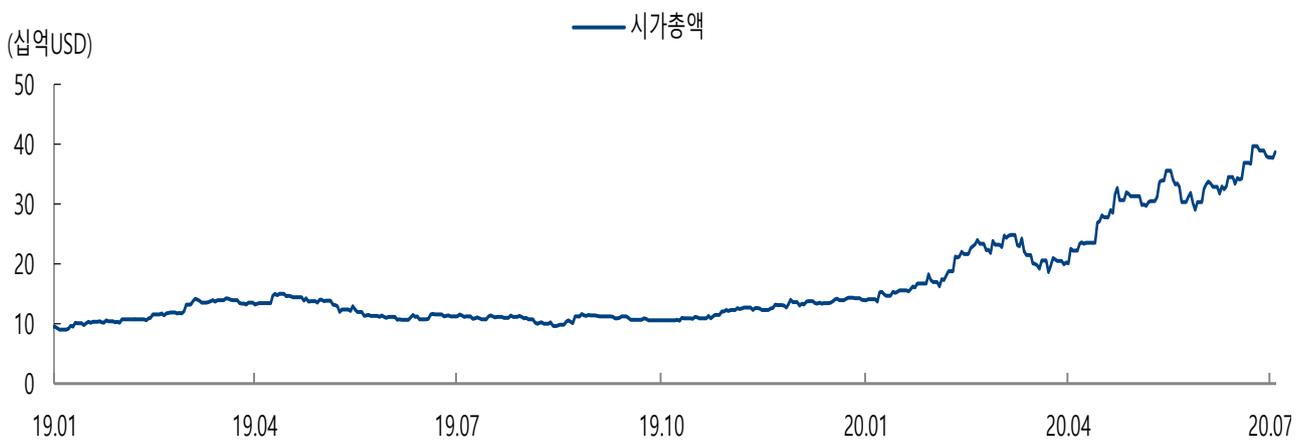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6. 스포티파이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그림17. 알리바바 헬스 시가총액 추이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2. 시가총액 순위로 세상의 변화를 읽는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글로벌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아랍코 제외) 애플(미국), MS(미국), 아마존(미국), 알파벳(미국), 페이스북(미국), 텐센트(중국), 알리바바(중국), 버크셔 해서웨이(미국), 비자(미국), 존슨앤존슨(미국), 월마트(미국), 네슬레(스위스), 로슈(스위스), 마스터카드(미국) 등이다.

애플(미국), MS(미국), 아마존(미국), 알파벳(미국), 페이스북(미국) 등의 견조함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스위스의 제약 기업 로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하여 전통적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인 JP 모건(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미국), 씨티그룹(미국), 보잉(미국), 엑스모빌(미국), 로열더치셸(영국) 등의 순위는 하락하였다.

코로나 19 로 인하여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에 따른 수혜 기업과 더불어 전염병 우려로 인한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가 탄력을 받은 반면 금융, 항공주, 에너지 등의 시가총액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 즉, 코로나 19 를 계기로 산업지형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재편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경우 지난 2007 년 역사상 처음으로 2000 선을 돌파한 이후 2008 년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890 선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0 년 12 월에는 IT 제품과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 설비투자 확대 등 경기 회복 기대감 등으로 3년 만에 재차 2000 선을 돌파하였다.

이 시기인 2010 년 12 월 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 선(우선주 제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POSCO, 현대차, 한국조선해양, 현대모비스, LG 화학, 신한지주, KB 금융, 삼성생명, 기아차 등이다. 즉,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인 IT, 자동차, 제철, 조선, 화학 관련주와 더불어 금융주 등으로 구성되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 19 로 인해 지난 3 월 19 일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저점을 기록한 이후 6 월 30 까지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는 각각 44.6%, 72.3% 상승하였다.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선(우선주 제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셀트리온, LG 화학, 삼성 SDI, LG 생활건강, 현대차, 카카오 등이다. 즉, 제 4 차 산업혁명 필수재인 반도체(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바이오 CMO 및 바이오시밀러(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온라인화의 핵심인 플랫폼(NAVER, 카카오),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LG 화학, 삼성 SDI)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2010년대 중반부터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환경하에서 산업지형의 변화가 그 동안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그 변화가 보다 더 빠르게 촉진되고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종목별로 상승과 하락의 차별화가 더욱 더 심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표3.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2020년 6월 30일 기준)(아랍코 제외)

2020-06-30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억 USD)
1	애플(미국)	15,800.0
2	MS(미국)	15,400.0
3	아마존(미국)	13,800.0
4	구글(미국)	9,663.9
5	페이스북(미국)	6,474.5
6	텐센트(중국)	6,146.0
7	알리바바(중국)	5,786.6
8	버크셔 해서웨이(미국)	4,334.6
9	비자(미국)	3,754.3
10	존슨 앤 존슨(미국)	3,705.0
11	월마트(미국)	3,392.1
12	네슬레(스위스)	3,291.2
13	로슈(스위스)	2,984.8
14	마스터카드(미국)	2,968.1
15	P&G(미국)	2,960.1
16	JP모건(미국)	2,866.0
17	유나이티드헬스(미국)	2,797.2
18	TSMC(대만)	2,745.3
19	홈디포(미국)	2,694.3
20	삼성전자(한국)	2,624.7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표4.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2009년 12월 31일 기준)

2009-12-31		
순위	회사명	시가총액(억 USD)
1	페트로차이나(중국)	3,531.4
2	엑손모빌(미국)	3,237.2
3	MS(미국)	2,706.4
4	ICBC(중국)	2,689.6
5	월마트(미국)	2,036.5
6	중국건설은행(중국)	2,014.5
7	BHP(호주)	2,011.1
8	HSBC(영국)	1,992.5
9	구글(미국)	1,967.0
10	애플(미국)	1,896.2
11	차이나 모바일(중국)	1,884.9
12	로얄 더치 쉘(네덜란드)	1,866.1
13	BP(영국)	1,818.0
14	존슨 앤 존슨(미국)	1,777.1
15	P&G(미국)	1,771.4
16	네슬레(스위스)	1,770.9
17	IBM(미국)	1,719.5
18	JP모건(미국)	1,710.5
19	AT&T(미국)	1,654.1
20	GE(미국)	1,611.0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표5.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2020년 6월 30일 기준)

순위	종목	시가총액 (조원)	코스피지수 (2020.06.30)	코스닥지수 (2020.06.30)
1	삼성전자	315.2	2108.3	738.0
2	SK하이닉스	62.0		
3	삼성바이오로직스	51.3		
4	NAVER	43.9		
5	셀트리온	41.3		
6	LG화학	34.6		
7	삼성SDI	25.0		
8	LG생활건강	21.0		
9	현대차	20.9		
10	카카오	23.5		
11	삼성물산	21.7		
12	현대모비스	18.3		
13	엔씨소프트	19.6		
14	SK텔레콤	17.0		
15	SK	20.5		
16	POSCO	15.2		
17	신한지주	13.7		
18	셀트리온헬스케어	16.4		
19	한국전력	12.5		
20	삼성에스디에스	13.0		
21	KB금융	14.1		
22	기아차	13.0		
23	LG	12.3		
24	KT&G	10.7		
25	아모레퍼시픽	9.8		
26	SK이노베이션	12.1		
27	LG전자	10.3		
28	삼성화재	8.3		
29	삼성전기	9.6		
30	삼성생명	8.9		

자료: 한국거래소, 하이투자증권

표6. 2010년 12월 31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순위	종목	시가총액 (조원)	코스피지수 (2010.12.31)	코스닥지수 (2010.12.31)
1	삼성전자	139.8	2051.0	510.7
2	POSCO	42.5		
3	현대차	38.2		
4	한국조선해양	33.7		
5	현대모비스	27.7		
6	LG화학	25.9		
7	신한지주	25.1		
8	KB금융	23.2		
9	삼성생명	20.5		
10	기아차	20.1		
11	한국전력	19.4		
12	SK이노베이션	17.9		
13	LG전자	17.1		
14	LG	15.1		
15	LG디스플레이	14.2		
16	SK하이닉스	14.2		
17	SK텔레콤	14.0		
18	롯데쇼핑	13.7		
19	KT	12.1		
20	신세계	11.6		
21	NAVER	10.9		
22	삼성화재	10.7		
23	현대제철	10.6		
24	S-Oil	10.4		
25	기업은행	10.2		
26	삼성중공업	9.5		
27	삼성전기	9.3		
28	하나금융지주	9.2		
29	두산중공업	9.1		
30	KT&G	8.9		

자료: 한국거래소, 하이투자증권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Untact) 라이프, 재정정책,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주목

코로나 19 위기가 모든 생태계에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인 코로나 뉴노멀이 전개될 전망이다. 코로나 뉴노멀에서는 개인주의 성향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언택트(Untact) 라이프 스타일이 가속화될 것이며,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의 무게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언택트(Untact)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질 것이다. 즉, 생필품 등의 전자상거래, 운송, 재택근무, 원격의료, 게임 및 미디어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5G 가 인프라 기술로 확장되면서 AR/VR, 동영상 등이 여러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뉴노멀 시대에서 등장하였던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는 초개인화 기술이 적용되어 개인화된 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제 4 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이 본격화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언택트(Untact)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가능케 하는 기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 코로나 19 이후에는 그 동안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 흐름에 소극적, 보수적으로 대응해 온 기업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활발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계시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전면으로 부상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가속화하고 있다.

코로나 19 로 인한 변화들이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종목들의 성장성 등이 향후에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변화되는 세상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1. 솔루션: 삼성에스디에스, 롯데정보통신, 한컴 MDS,
- 2. 인프라: 케이아이엔엑스, 에치에프알, 3. 보안: 파이오링크, 4. 하드웨어: 삼성전자, 싸이맥스, 인텍플렉스)

- 언택트 라이프(1. 결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모빌리언스, 갤럭시아컴즈
2. 콘텐츠: 펠어비스, 스튜디오드래곤, 3.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4. 신선식품: 지어소프트, 5. 재택근무: 알서포트, 6. 클라우드: 더존비즈온, 7. 오프라인제품: 에코마케팅)

- 재정정책(LS, LS ELECTRIC, 대림산업, 현대상사, 동국 S&C, 씨에스베어링, 그린플러스)

- 스마트 헬스케어(1. 디지털의료서비스: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레이, 2. 인프라: 메디아나, 제이브이엠, 3. 백신: SK 케미칼, 4. CMO: SK, 삼성물산, 5. 바이오: 에스티팜, 엔지켐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 6. 건강기능식품: 콜마비엔에이치,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엔비티, 7. 수술용로봇: 고영)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련 수혜주

콜마비앤에이치(200130)_한국과 중국에서 성장 가속화

테고사이언스(191420)_높은 시장 잠재력으로 성장성 부각 될
듯

콜마비엔에이치 (200130)

NR

액면가	500 원
증가(2020/07/03)	49,600 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15 십억원
발행주식수	2,954만주
시가총액	1,465 십억원
외국인비율	4.9%
52 주주가	19,650~49,600 원
60 일평균거래량	395,508 주
60 일평균거래대금	15.5 십억원

주요지표(%)	1M	3M	6M	12M
절대주요율	14.4	103.3	86.5	84.4
상대주요율	12.4	72.0	74.2	75.9



FY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십억원)	256	338	386	439
영업이익(십억원)	36	49	59	74
순이익(십억원)	30	46	48	54
EPS(원)	1,006	1,549	1,637	1,844
BPS(원)	4,302	5,714	6,928	8,545
PER(배)	18.5	21.0	12.2	15.1
PBR(배)	4.3	5.7	2.9	3.3
ROE(%)	26.2	30.9	25.9	23.8
배당수율(%)	0.5	0.4	0.5	0.6
EV/EBITDA(배)	14.3	18.6	9.4	10.4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김관효 (2122-9194) kkh0468@hi-ib.com

한국과 중국에서 성장 가속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OEM/ODM 전문 업체

지난 2004 년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선바이오텍이 2013 년 한국푸드팜과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천연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소재를 사업화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OEM/ODM 방식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매출처는 애터미 등이다. 올해 1 분기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 63.4%, 화장품 35.5%, 기타 1.1% 등이다.

면역 증진 건강기능식품 및 비아터미향 매출 증가로 성장 가속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등 전염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원료가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면역 증진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이 크게 상승하면서 동사의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즉, 주력 매출처인 애터미 등에 공급하는 면역증진 건강기능식품 헤모힘 및 비타민류 등의 매출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무엇보다 애터미 등 네트워크 마케팅 채널 외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성장의 한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애터미의 중국 진출로 동사 중국향 매출 가시화 되면서 성장성 부각 될 듯

동사의 주력 매출처인 애터미는 지난 4 월 중국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회원 및 경소상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애터미의 중국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동사의 애터미 차이나향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향후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동사는 2018 년부터 애터미와 중국 합작법인 연태콜마를 설립하고 공장을 건립해왔다. 애터미 중국 판매물량을 전담 생산하는 연태콜마는 올해 하반기 완공 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 법인 강소콜마를 오는 8 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강소콜마를 통해 중국에서 애터미 외 자체 영업 및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 성장 가속화 환경하에서 중국에서의 성장성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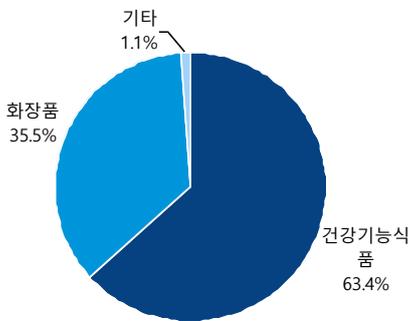
현재 동사 주가는 올해 및 내년 예상실적 기준으로 각각 PER 20.3 배, 17.8 배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매출성장기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매출이 가시화 되면서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표7. 콜마비엔에이치 실적 추이 및 전망

FY	매출액(억원)	영업이익(억원)	세전이익(억원)	순이익(억원)	지배주주순이익(억원)	EPS(원)	PER(배)
2017	3,376	488	590	474	458	1,549	21.0
2018	3,864	585	642	493	484	1,637	12.2
2019	4,389	741	721	548	545	1,844	15.1
2020E	5,253	946	956	725	721	2,441	20.3
2021E	6,030	1,085	1,095	830	825	2,793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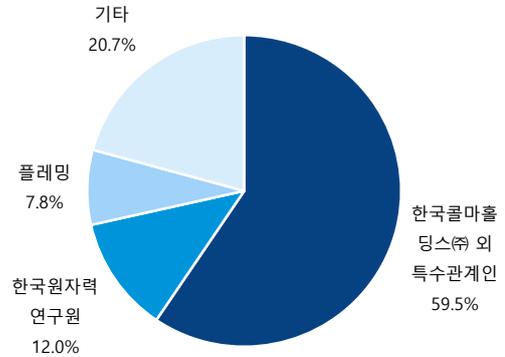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그림18. 콜마비엔에이치 매출 구성(2020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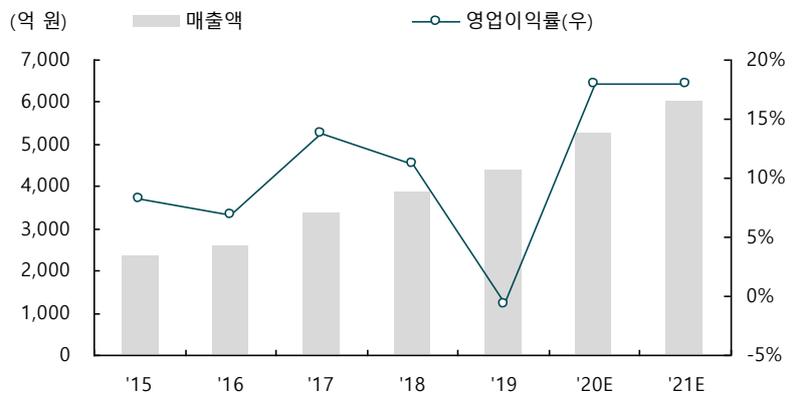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그림19. 콜마비엔에이치 주주 분포(2020년 6월 1일 기준)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그림20. 콜마비엔에이치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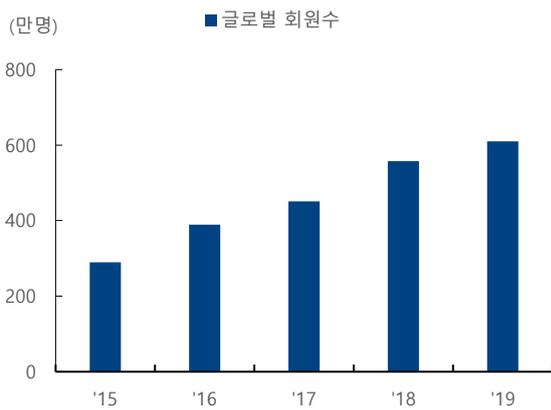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그림21. 콜마비엔에이치 연구개발, 생산, 유통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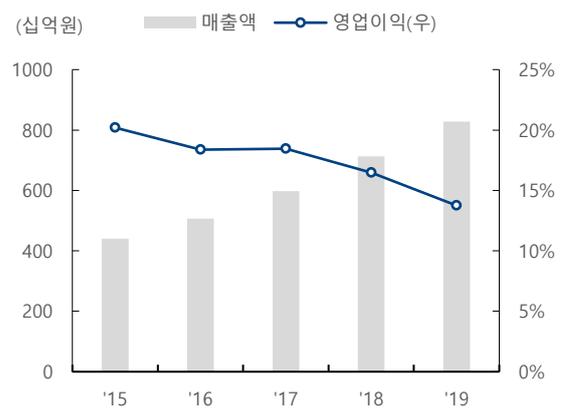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그림22. 애터미 글로벌 회원수 추이



자료: 애터미, 하이투자증권

그림23. 애터미 실적 추이



자료: 애터미, 하이투자증권

표8. 콜마비엔에이치 중국 연태콜마 현황

법인명		연태콜마에터미보건설식품유한공사
공장위치		상동성 연태시 고신구 경삼로 36호
부지		부지면적 6,500평(32.5 畝) 연면적 6,860평
총 투자금액		USD 16,000,000
생산제형		분말, 과립, 정제 등
제 1공장	예상케파	연간 500억
	투자금	100억원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표9. 콜마비엔에이치 중국 강소콜마 현황

법인명		강소콜마미보과기유한공사
공장위치		강소성 염성시 대풍구 경제개발구 서구 4호로 동측
부지		부지면적 22,981평(약 113.8 畝) 연면적 17,135평
총 투자금액		USD 42,000,000
생산제형		분말, 정제, 연질/경질 캡슐, 스틱젤리 위주생산
제 1공장	예상케파	연간 2,000억
	투자금	220억원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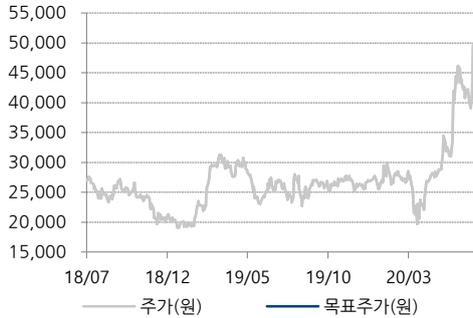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94	157	152	207	매출액	256	338	386	439
현금 및 현금성자산	17	34	29	60	증가율(%)	8.4	31.9	14.5	13.6
단기금융자산	42	55	31	43	매출원가	211	276	309	344
매출채권	15	32	41	40	매출총이익	45	61	77	95
재고자산	17	32	38	49	판매비와관리비	9	12	18	21
비유동자산	64	114	140	179	연구개발비	0	0	1	1
유형자산	49	79	87	123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0	15	17	17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159	271	292	386	영업이익	36	49	59	74
유동부채	29	90	82	116	증가율(%)	5.1	34.7	20.0	26.5
매입채무	13	62	55	81	영업이익률(%)	14.1	14.4	15.2	16.9
단기차입금	7	11	9	9	이자수익	1	1	1	1
유동성장기부채	-	3	0	1	이자비용	0	0	0	0
비유동부채	1	3	3	16	지분법이익(손실)	2	1	0	0
사채	-	-	-	-	기타영업외손익	0	9	2	0
장기차입금	0	1	0	13	세전계속사업이익	39	59	64	72
부채총계	30	93	85	132	법인세비용	9	12	15	17
자배주주지분	127	169	205	252	세전계속이익률(%)	15.0	17.5	16.6	16.4
자본금	15	15	15	15	당기순이익	30	47	49	55
자본잉여금	31	31	23	23	순이익률(%)	11.6	14.1	12.8	12.5
이익잉여금	82	124	167	214	자배주주귀속 순이익	30	46	48	54
기타자본항목	0	0	0	0	기타포괄이익	0	0	0	-1
비자배주주지분	2	9	2	2	총포괄이익	29	47	49	54
자본총계	129	178	207	255	자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29	45	48	54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21	53	22	78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30	47	49	55	EPS	1,006	1,549	1,637	1,844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	3	4	5	BPS	4,302	5,714	6,928	8,545
무형자산상각비	0	0	-	-	CFPS	1,078	1,666	1,777	2,020
지분법관련손실(이익)	2	1	0	0	DPS	130	160	200	250
투자활동 현금흐름	-21	-31	-3	-50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12	-11	-9	-34	PER	18.5	21.0	12.2	15.1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	0	2	0	PBR	4.3	5.7	2.9	3.3
금융상품의 증감	-2	-14	-96	-116	PCR	17.2	19.5	11.2	13.7
재무활동 현금흐름	5	-4	-25	2	EV/EBITDA	14.3	18.6	9.4	10.4
단기금융부채의증감	-2	4	-1	-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13	13	13	-	ROE	26.2	30.9	25.9	23.8
자본의증감	0	0	0	-	EBITDA 이익률	15.0	15.5	16.2	18.1
배당금지급	-2	-4	-5	-6	부채비율	23.3	52.4	41.2	51.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5	17	-5	30	순부채비율	-40.0	-41.8	-24.7	-31.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2	17	34	29	매출채권회전율(x)	21.9	14.2	10.5	10.8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7	34	29	60	재고자산회전율(x)	13.6	13.8	11.0	10.1

자료 : 콜마비앤에이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콜마비엔에이치
최근 2년간 투자이건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이건	목표주가 (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 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20-07-03(담당자변경)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상현, 김관효)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이건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20-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이건 비율(%)	90.5%	9.5%	-

테고사이언스 (191420)

NR

액면가	500 원
증가(2020/07/03)	27,650 원

Stock Indicator	
자본금	2십억원
발행주식수	809만주
시가총액	224십억원
외국인비율	1.3%
52 주주가	9,800~30,750원
60 일평균거래량	268,589주
60 일평균거래대금	7.3십억원

주요지표(%)	1M	3M	6M	12M
절수율	35.9	81.9	20.0	3.6
상수율	33.9	50.6	7.7	-5.0



FY	2016	2017	2018	2019
매출액(십억원)	8	9	8	6
영업이익(십억원)	2	2	1	0
순이익(십억원)	1	-6	-2	1
EPS(원)	104	-765	-226	106
BPS(원)	3,508	4,538	5,781	5,914
PER(배)	220.7			242.9
PBR(배)	7.2	11.1	6.2	4.0
ROE(%)	3.0	-19.5	-4.4	1.8
배당수익률(%)				
EV/EBITDA(배)	72.6	185.9	238.1	202.5

주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지주/Mid-Small Cap]
 이상현 (2122-9198) value3@hi-ib.com
 김관효 (2122-9194) kkh0468@hi-ib.com

높은 시장 잠재력으로 성장성 부각 될 듯

피부세포 치료제 개발 및 제조 전문업체

동사는 지난 2001 년 설립되어 피부세포 배양기술을 기반으로 한 피부세포 치료제 개발 및 제조 전문업체이다. 세포치료란 사람 등의 세포를 의약품처럼 치료제로 사용해 환자에게 주입해 세포를 교체하거나 재생하는 방식으로 동사의 경우 생식세포를 제외한 피부세포 등 분화가 끝난 일반적인 체세포를 이용해 치료제를 만든다.

회전근개파열 치료제 대한 성장성 부각될 듯

회전근개파열은 어깨와 팔을 연결하는 근육과 인대(회전근개)가 강한 외부 충격으로 손상돼 어깨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와 같은 전세계 건(tendon) 질환 치료 시장은 약 13 조원으로 추정되며, 2024 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시장 역시 노령화 가속과 소득증가에 따른 야외 레저스포츠 활동증가로 인해 발병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로 통증을 완화하거나 수술을 통해 끊어진 어깨 건을 연결하는 게 통상적인 치료다. 따라서 개발 가능성이 크고 치료 과정에서 고통도 크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동사는 차세대 세포치료제로서 회전근개파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자기유래세포치료제 TPX-114 와 동종유래세포치료제 TPX-115 를 개발하고 있다. 자기유래세포치료제인 TPX-114 는 현재 회전근개전층파열(FTRCT)를 목표 적응증으로 하여 국내 임상 3 상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동종유래세포치료제인 TPX-115 는 TPX-114 에 비해 경증의 건파열부터 건병증까지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TPX-115 는 2020 년 3 월에 회전근개부근층파열(PTRCT)를 목표 적응증으로 하는 제 1/2 상 임상시험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내년 초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임상 1 상을 위한 임상시험 계획서(IND)를 제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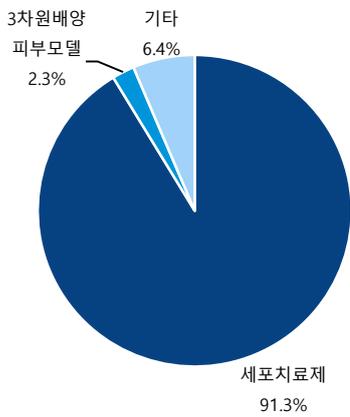
TPX-114 와 TPX-115 는 모두 파열된 건의 근본적인 재생을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높은 시장잠재력으로 향후 성장성 등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당뇨병성족부궤양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올해 매출 상승의 원동력이 될 듯

동사는 2002 년에 자기유래 세포를 이용해 만든 3 도 화상 치료제 홀로덤을, 2005 년에는 타인 피부 조직에서 떼낸 동종유래 세포로 만든 2 도 화상 치료제 칼로덤을 개발하였다. 또한 2017 년에는 자기유래 세포를 이용해 만든 눈밀 주름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를 출시하였으며, 인간 피부조직을 재현한 삼차원 구조의 배양피부모델인 네오덤은 동물실험을 대체하여 화장품 및 의약품 원료의 효능 및 안전성 테스트하는 실험용 모델 등으로 사용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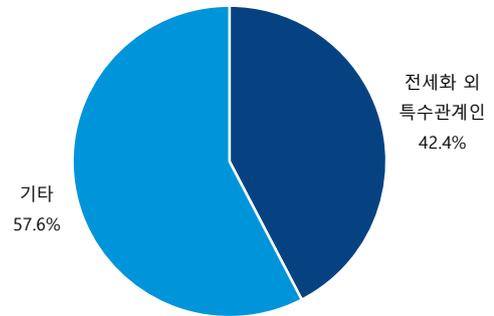
동사 칼로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지난해 9 월 1 일부터 확대 적용되었다. 2007 년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듯이, 당뇨병성족부궤양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올해 매출 상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림24. 테고사이언스 매출 구성(2020년 1분기 기준)



자료: 테고사이언스, 하이투자증권

그림25. 테고사이언스 주주 분포(2020년 3월 31일 기준)



자료: 테고사이언스, 하이투자증권

그림26. 테고사이언스 주요 제품



HOLODERM

- 자기유래세포치료제
- 품목허가 2002년
- 광범위 2도 및 3도 화상



KALODERM

- 동종유래세포치료제
- 품목허가 2005, 2010년
- 2도 화상, DFU

ROSMIR

- 자기유래세포치료제
- 품목허가 2017년 12월
- 비혈골고양 주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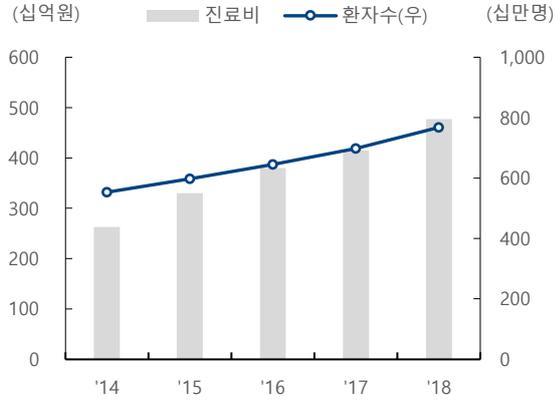
NEODERM

- 3D 배양피부모델
- 2003년 판매개시
- 동물실험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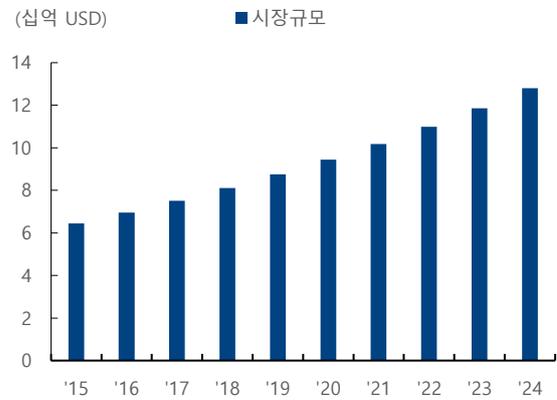
자료: 테고사이언스, 하이투자증권

그림27. 국내 회전근개파열 환자수 및 진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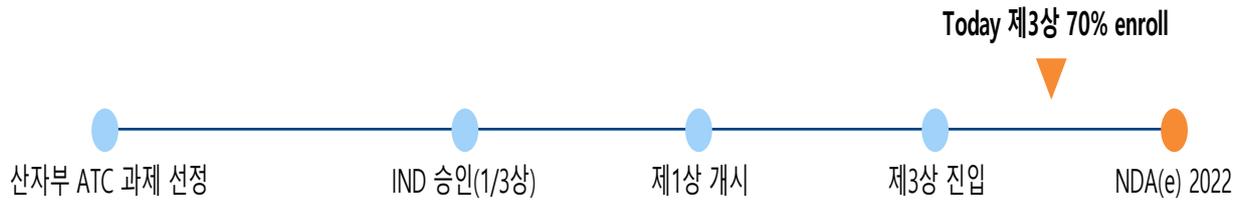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하이투자증권

그림28. 글로벌 회전근개파열 질환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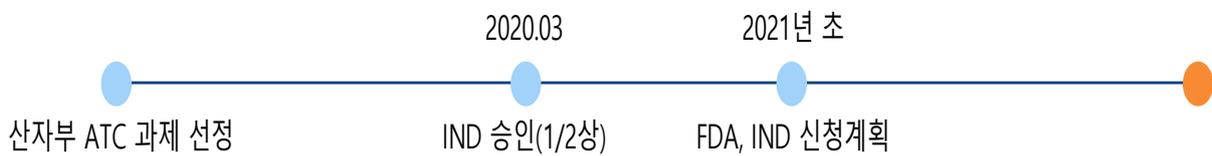
자료: Variant Market Research, 하이투자증권

그림29. TPX-114 현황



자료: 테고사이언스, 하이투자증권

그림30. TPX-115 현황



자료: 테고사이언스, 하이투자증권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유동자산	31	24	25	26	매출액	8	9	8	6
현금 및 현금성자산	4	0	1	2	증가율(%)	-	3.6	-9.2	-19.2
단기금융자산	23	20	20	21	매출원가	2	2	2	2
매출채권	3	3	3	3	매출총이익	7	7	6	5
재고자산	1	1	1	1	판매비와관리비	4	5	5	4
비유동자산	13	23	22	22	연구개발비	1	2	2	2
유형자산	9	19	19	19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1	0	0	0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45	48	48	49	영업이익	2	2	1	0
유동부채	1	12	1	1	증가율(%)	-	-19.3	-53.7	-60.4
매입채무	0	0	0	0	영업이익률(%)	28.0	21.8	11.1	5.5
단기차입금	-	-	-	-	이자수익	0	0	0	0
유동성장기부채	-	-	-	-	이자비용	0	1	0	0
비유동부채	18	0	-	0	지분법이익(손실)	0	-	-	-
사채	12	-	-	-	기타영업외손익	0	0	1	0
장기차입금	6	0	-	0	세전계속사업이익	1	-6	-1	1
부채총계	19	12	1	1	법인세비용	0	0	1	0
자배주주지분	26	36	47	48	세전계속이익률(%)	7.3	-73.9	-7.0	13.6
자본금	2	2	4	4	당기순이익	1	-6	-2	1
자본잉여금	11	28	38	39	순이익률(%)	9.0	-70.0	-23.7	13.1
이익잉여금	13	6	4	5	자배주주구속 순이익	1	-6	-2	1
기타자본항목	-	0	0	0	기타포괄이익	-	-	-	-
비자배주주지분	0	0	0	0	총포괄이익	1	-6	-2	1
자본총계	26	36	47	48	자배주주구속총포괄이익	1	-6	-2	1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단위:십억원)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영업활동 현금흐름	2	3	1	0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1	-6	-2	1	EPS	104	-765	-226	106
유형자산감가상각비	0	0	0	1	BPS	3,508	4,538	5,781	5,914
무형자산상각비	0	0	0	0	CFPS	139	-736	-185	179
지분법관련손실(이익)	0	-	-	-	DPS	-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15	-7	0	0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2	-10	0	0	PER	220.7			242.9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1	0	0	0	PBR	7.2	11.1	6.2	4.0
금융상품의 증감	6	-2	-2	-2	PCR	165.4	-34.9	-139.0	143.7
재무활동 현금흐름	16	-	0	0	EV/EBITDA	72.6	185.9	238.1	202.5
단기금융부채의증감	-	4	-	-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18	0	0	-	ROE	3.0	-19.5	-4.4	1.8
자본의증감	0	0	0	-	EBITDA 이익률	31.1	24.5	15.4	14.8
배당금지급	-	-	-	-	부채비율	71.3	33.0	1.8	1.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3	-4	1	0	순부채비율	-36.5	-56.4	-46.5	-46.6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	4	0	1	매출채권회전율(x)	5.3	2.7	2.7	2.4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4	0	1	2	재고자산회전율(x)	22.9	10.7	9.9	6.9

자료 : 테고사이언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테고사이언스
최근 2년간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목표주가 대상시점	괴리율	
				평균 주가대비	최고(최저) 주가대비

2020-07-06 NR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이상현, 김관효)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 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20-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90.5%	9.5%	-